
조선후기 평민 同姓마을의 형성과 특징

- 大丘府 解北村 廣里의 丹陽 禹氏 사례

김경란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머리말

I. 丹陽 禹氏 同姓마을의 형성시기

II. 인적 구성의 확대와 他 姓貫의 배제과정

III. 同姓마을 구성원의 혈연적 연관성과 혼인관계

맺음말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 번호: NRF-2015S1A5B5A02016587).
- 투고일: 2017. 11. 20. ● 심사일: 2017. 11. 23. ● 게재확정일: 2017. 12. 4.

요약

『慶尙道大丘府戶籍大帳』의 기록에 의하면, 대구부의 동성마을은 주로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후반~20세기에 형성된 마을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민 동성마을로 규정할 수 있는 마을들이 포함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解北村 廣里의 丹陽 禹氏 동성마을이다. 해북촌 광리에 형성된 단양 우씨 동성마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북촌 광리에 거주했던 단양 우씨는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양반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동성마을이 된 광리에서는 양반을 찾아 보기 어렵다. 광리는 본래 상층양반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고, 여러 姓貫을 가진 평민들이 거주한 전형적인 민촌이었다. 마을의 규모 역시 18세기 중반~19세기 후반까지 50~80호 정도를 유지한 작은 마을이었다. 中層職役者가 대다수였던 단양 우씨는 19세기 이후 마을 내의 다른 성관들에 앞서 上層職役으로 상승하였다. 직역상승을 통해 사회적 위상을 높이려는 단양 우씨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동성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광리의 단양 우씨는 공통의 祖先에서 비롯된 단일한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평민 동성마을내의 구성원들은 혈연적 연관성이 없거나 또는 여러 계보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존의 이해와는 상충된다. 광리의 단양 우씨는 오랜 기간에 걸친 世居로 혈연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양반 동성마을은 유력성관이나 가문과 중첩적으로 통혼권을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평민층이었던 광리 단양 우씨

의 통혼 양상은 일반적인 양반 동성마을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양반 동성마을처럼 특정 성관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혼인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단양 우씨 배우자의 출신촌락 역시 특정 마을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평민 동성마을의 통혼양상은 양반마을의 그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광리 단양 우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19세기 이후 동성마을의 형성주체는 양반 뿐 아니라 평민층으로까지 분화되었다. 평민 동성마을은 광리 단양 우씨의 경우처럼 구성원들 사이에 밀접한 혈연적 연관성을 가진 마을도 있었다. 이러한 평민 동성마을의 형성은 조선후기 친족질서 전반에 나타났던 일반민의 상층지향성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평민 동성마을은 동일 성관의 血緣的 集居라는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양반 동성마을과 유사하였지만, 그 내부적인 구성은 다른 측면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同姓마을, 職役, 集居, 姓貫, 平民

머리말

조선후기 이래 20세기 중반 무렵까지 한국의 보편적 마을 형태였던 同姓마을은 한국 전통사회의 특질을 밝힐 수 있는 주요한 매개체이다. 그런데 동성마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兩班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등과 같은 유명한 동성마을에 집중되었다. 반면, 平·賤民이 거주했던 民村의 동족적인 기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동성마을에 대한 연구의 목적이 동성마을을 기반으로 한 문중활동의 양상을 밝히는 데 있거나, 향촌사회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동성마을의 사회적 기능을 주목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었던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¹⁾ 또한 상대적으로 양반촌에 대한 연구 자료가 풍부한 반면, 平·賤民이 거주했던 민촌에 접근할 연구 자료가 소략했던 것도 그 주요한 원인이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동성마을에서의 嫡庶 분리, 평민 동성마을의 형성 등에 대한 문제로까지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²⁾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戶籍大帳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물로 여겨진다. 호적대장에는 上層인 兩班 뿐만 아니라 中·下層인 平·賤民에 이르기까지 全 계층의 주거현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마을 연구의 자료적 한

1) 동성마을에 대한 대표적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수건, 1990, 「良洞의 역사적 고찰」, 『良佐洞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이해준, 1996, 「동족마을의 형성과 조직」,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정진영, 1998, 「조선후기 동성촌락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조선시대향촌사회사』, 한길사.

오영교, 2004, 『강원의 동족마을』, 집문당.

2) 권내현, 2004, 「조선후기 호적과 족보를 통한 동성촌락의 복원」,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전히 평민 동성마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면 호적대장을 이용한 평민 동성마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慶尙道大丘府戶籍大帳』의 기록을 토대로 조선후기 평민 동성마을의 형성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³⁾

대구부가 속해있는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성마을이 분포한 지역이었다.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대구부에도 조선후기부터 많은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부의 동성마을은 주로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후반~20세기에 형성된 마을도 적지 않았다.⁴⁾ 그리고 여기에는 평민 동성마을로 규정할 수 있는 마을들이 포함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解北村 廣里에 형성된 丹陽 禹氏의 동성마을이다. 이 글에서는 해북촌 광리에 형성된 단양 우씨 동성마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 평민 동성마을의 구체적 면모를 밝히고자 한다.

양반촌 뿐만 아니라 평·천민이 거주했던 일반 민촌에서 동성마을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시기를 검토하는 작업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父系的 친족질서가 조선사회에 확산되는 과정 및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즉, 일반 민촌에서의 동성마을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적 가치가 하층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3)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전산화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완료된 전산화 자료를 이용하였다.

4) 김경란, 2016, 「조선후기 대구부 同姓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3, 한국사학회.

I. 丹陽 禹氏 同姓마을의 형성시기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의 村落과 姓氏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사업의 책임자인 일본인 학자 善生永助는 한 마을에 특정 성관이 1할 이상 거주하면 동성마을로 분류하였다. 이 때문에 동성마을의 숫자가 너무 많이 파악되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20세기 전반 동성마을의 전국적인 분포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성마을이 분포한 지역은 경상북도이며, 모두 1,901개의 동성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대구부의 농촌지역은 1930년대 당시 행정구역이 대부분 달성군에 속해 있었는데, 달성군에 분포한 동성마을의 수는 113개로 경상북도 내에서도 동성마을이 많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분류될 수 있다.⁵⁾

1930년대 당시 달성군에서는 성북면, 공산면, 해안면에 동성마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 3개 面은 동성마을이 많이 분포했을 뿐 아니라 동일 성관이 100호 이상 거주했던 대규모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던 지역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양반 동성마을뿐 만 아니라 평민들에 의해 형성된 동성마을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공산면에 소재했던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이다.

1930년대 달성군 공산면은 조선후기에는 대구부 해북촌과 해서촌에 해당하며,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은 해북촌에 소재하였다. 해북촌은 대구부 감영이 소재했던 중심지역으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하였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⁶⁾ 이 농촌지역에 단양 우씨는 언제부터 거주를 시작하였으

5) 김경란, 2016, 앞의 글, 99~103쪽.

조선후기 평민 同姓마을의 형성과 특징

며, 동성마을을 형성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북촌에 거주했던 단양 우씨의 수적 추이와 거주촌락을 살펴보자.

【표 1】 해북촌 단양우씨의 戶數 추이와 거주촌락의 분포

연도	里名		능성리	미대리	백안리	백상리	여(을)어리	인산리	중산리	중심리	진정리	평리	평평리	합계
	광리													
1684년														0
1690년														0
1696년														0
1705년														0
1720년														0
1732년							12							12
1738년							11						2	13
1741년							10						3	13
1747년							11	1					4	16
1768년	15							1	1				4	21
1774년	13				2			1	1			4		22
1789년	11			1	1			1	1			6		22
1792년	12			1	3			1	2			9		28
1795년	12				4			1	1			11		29
1801년	14				6			1	2			4		27
1804년	17			1	6			1		2		4		31
1825년	18				7				1					26
1837년	17		1		11				1			1		31
1846년	21				12				1	1				35
1858년	28				10				1	1				40
1861년	32				9				1			1		43
1867년	25				8	2			1		1	1		39
1870년	25				8	2			1		2	1		39

6)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73, 『大邱市史』, 259~270쪽.

대구부에 소속된 하위행정단위는 面, 村, 部 등의 명칭으로 구획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面, 村, 部 내에는 하위행정구역으로 里가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面, 촌, 부는 모두 面에 준하는 동일한 위상을 가진 행정단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북촌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19개의 里가 있었다. 현존하는 해북촌의 호적대장은 17세기 후반~19세기 후반까지 거의 200년에 걸친 23개 式年의 자료가 남아 있다. 【표 1】은 현존하는 23개 식년의 호적대장의 기록을 토대로 단양 우씨의 戶數 추이와 거주촌락을 집계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해북촌의 호적대장에 단양 우씨가 처음 기재되었던 마을은 1732년 여(을)어리였다.⁷⁾ 1732년 여(을)어리에는 12호의 단양우씨호가 기재되었으며, 1738, 1741, 1747년까지 대체로 비슷한 호수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1768년에는 단양 우씨가 거의 대부분 광리에 거주하였으며, 여(을)어리에는 단양 우씨호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양 우씨가 새로운 마을로 집단이주한 결과일까?

그런데 1768년 해북촌의 호적대장에는 여(을)어리라는 里名이 빠져 있으며, 이 때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여(을)어리라는 里名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또한 1768년에는 여(을)어리 뿐 만 아니라 몇 개의 里名이 바뀌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1747~1768년 사이에 해북촌의 里편제가 상당히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里名이 바뀌거나 分洞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양 우씨가 거주했던 여(을)어리도 그 과정에서 광리로 바뀌었으며, 따라서 단양 우씨는 그들이 정착했던 마을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단, 광리가 여(을)어리의 명칭만이 바뀐 마을인지

7) 1684~1747년 해북촌의 호적대장에는 여어리와 여을어리가 혼용되어 번갈아 쓰이고 있다. 즉, 여어리와 여을어리는 같은 마을이며, 里名이 바뀌거나 分洞이 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여어리와 여을어리는 여(을)어리라는 里名으로 같이 통계처리하였다. 이에 비해 평평리는 1768년 이후 평리로 里名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또는 여(을)어리 이외에 또 다른 마을이 통합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표 1】에서는 해북촌의 단양 우씨가 1732년 이후 여(을)어리 또는 광리로 지칭되는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19세기 중반 무렵인 1858년에는 28호까지 그 수적 확대를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시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광리는 총 호수가 50~80호 정도인 작은 마을이었다. 따라서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19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는 광리에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표 1】을 통해 볼 때, 1732년 이전에는 단양 우씨가 거주한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해북촌의 단양 우씨는 1732년 당시 처음으로 해북촌에 정착하였을까? 즉, 1732년 이전에 단양 우씨가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단양우씨가 이 시기에 이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1732년 해북촌 여(을)어리에 거주하는 단양 우씨호의 구성원과 1732년 이전의 호적대장의 기록을 대비한 결과, 해북촌의 단양 우씨가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표 2】 1732년 해북촌 단양 우씨의 改貫실태

구분	연도	里-統戶	戶內位相	이름	姓貫	改貫내용	비고
①	1732년	여어리-1-3	주호	여세	단양 우	대구 우	협석의 子 여세가 改貫
	1684년	여을어리-5-2	주호	협석	대구 우	→ 단양 우	
②	1732년	어어리-1-4	주호	소근 노미	단양 우	대구 우	맛만의 子 소근노미가 改貫
	1684년	여을어리-3-5	주호	맛만	대구 우	→ 단양 우	
③	1732년	여어리-1-5	주호	철선	단양 우	대구 우	협산의 子 철선이 改貫
	1684년	여을어리-4-4	주호	협산	대구 우	→ 단양 우	
④	1732년	여어리-2-2	주호	만선	단양 우	대구 우	협산의 子 만선이 改貫
	1684년	여을어리-4-4	주호	협산	대구 우	→ 단양 우	

⑤	1732년	여어리-2-3	주호	언봉	단양 우	대구 우 → 단양 우	잔자미의 子 언봉이 改貫. 父 잔자미도 1732년 단양 우씨로 개관(⑦의 사례)
	1684년	여을어리-4-5	주호	잔자미	대구 우		
⑥	1732년	여어리-6-5	주호	삼룡	단양 우	대구 우 → 단양 우	어둔금의 子 삼룡이 改貫
	1705년	여어리-11-1	주호	어둔금	대구 우		
⑦	1732년	여어리-8-1	주호	잔자미	단양 우	대구 우 → 단양 우	협석의 子 잔자미 改貫
	1684년	여을어리-5-2	주호	협석	대구 우		
⑧	1732년	여어리-8-5	주호	만세	단양 우	대구 우 → 단양 우	협산의 子 만세
	1684년	여을어리-4-4	주호	협산	대구 우		
⑨	1732년	여어리-9-2	주호	정남	단양 우	대구 우 → 단양 우	득룡의 子 정남이 改貫
	1684년	여을어리-4-1	주호	득룡	대구 우		
⑩	1732년	여어리-9-4	주호	소사	단양 우	대구 우 → 단양 우	맛만의 女 소사가 改貫
	1684년	여을어리-3-5	주호	맛만	대구 우		
⑪	1732년	여어리-11-3	주호	돌립	단양 우	대구 우 → 단양 우	잔자미의 孫子 돌립이 改貫
	1684년	여을어리-4-5	주호	잔자미	대구 우		
⑫	1732년	여어리-12-2	주호	득삼	단양 우	대구 우 → 단양 우	칠생의 子 득삼이 改貫
	1684년	여을어리-4-1	자	칠생	대구 우		

【표 2】는 단양우씨가 처음 기재된 1732년 해북촌 여(을)어리 단양 우씨호의 主戶와 주호의 四祖기록을 이전 식년인 1684, 1690, 1696, 1705년의 호적대장의 기록과 비교하여 작성된 것이다.⁸⁾ 그 결과 1732년 단양 우씨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전 식년에는 대구 우씨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1732년 여(을)어리에는 총 12호의 단양 우씨호가 기재되었는데, 12호의 주호 또는 주호의 父, 祖가 1684~1705년 사이에는 모두 대구

8) 1720년은 여(을)어리가 호적대장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1720년 해북촌 호적대장은 전후 식년과 비교했을 때 여(을)어리, 인산리, 평평리가 빠져 있으며, 해당촌의 말미에 붙어 있는 都以上 정보가 빠져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1720년 해북촌 호적대장에는 여(을)어리를 비롯하여 뒤쪽에 해당되는 몇 개 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우씨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①의 사례를 예로 들면, 1732년 여어리 1통 3호의 주호의 이름은 여세이며, 그는 단양 우씨이다. 그런데 여세의 사조난에 父로 기재된 험석은 1684년 여을어리 5통 2호의 주호였는데, 험석의 성관은 대구 우씨였다. 즉, 子인 여세가 1732년에 단양 우씨로 改貫하였던 것이다. 나머지 사례도 모두 동일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1732년 해북촌 여(을)어리의 단양 우씨호의 주호 또는 주호의 父, 祖가 이전 식년에서 모두 대구 우씨를 칭하였는데, 18세기 전반 무렵 단양 우씨로 개관하였던 것이다. 18세기 전반 무렵 해북촌의 대구 우씨가 단양 우씨로 개관한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해북촌의 모든 호적대장에는 대구 우씨가 기재되지 않았다.

단양 우씨의 경우에서 보여지는 개관현상은 조선후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개관은 姓은 그대로 둔 채 本貫만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16세기 이후 문벌의식이 고조되면서 名祖·顯祖를 받들지 못한 僻貫들은 명문거족에 동화되기 위하여 본관을 바꾸는 改貫·冒貫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차례 성관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17세기 이후 양반사회에서 稀姓·僻姓과 僻貫을 멸시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가면서 개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⁹⁾ 이와 같이 개관은 기본적으로 당시 사회의 성관에 대한 우열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개관을 통해 새롭게 얻었던 성관은 대개 해당 지역의 유력 성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북촌의 대구 우씨가 개관을 통해 획득한 단양 우씨도 역시 대구부의 유력 성관이었다. 麗末鮮初의 정치적 격동기에 중앙정계에서 배제되어 경상도로 낙향한 단양 우씨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청년 의병장인 禹拜善의 활약을 통해 대구부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단양 우씨는 대구부의 월

9) 李樹健, 1994, 「朝鮮後期 姓貫意識과 編譜體制의 變化」, 『九谷黃種東教授 停年紀念史學論叢』.

촌지역(月背坊과 租岩坊을 아우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성마을을 형성하고 그 族勢를 확대함으로써 대구부의 대표적인 유력 성관으로 부상하였다.¹⁰⁾ 그런데 해북촌의 단양 우씨는 이들과는 혈연적 연관성이 없었으며, 개관을 통해 단양 우씨를 칭하고 있었다.¹¹⁾ 그렇다면 해북촌 단양 우씨가 개관하기 이전의 성관이었던 대구 우씨는 언제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을까. 【표 3】을 보자.

【표 3】 1684~1705년 해북촌 대구 우씨의 거주촌락

연도	里名	여(을)어리	평평리	합계
1684년		7		7
1690년		11		11
1696년		12		12
1705년		14	1	15

【표 3】은 1684, 1690, 1696, 1705년 해북촌의 대구 우씨가 거주한 마을을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대구 우씨는 여(을)어리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05년 평평리에 거주한 대구 우씨 1호를 제외한 해북촌의 모든 대구 우씨가 여(을)어리에 거주하였던 것이다. 1720년의 호적대장에는 대구 우씨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 우씨가 주로 거주하였던 여(을)어리가 누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통계에서는 1720년을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1732년에 처음 해북촌에 나타난 단양 우씨는 새롭게 이주한 성관이 아니라 17세기 후반에 이미 해북촌에 거주하였던 대구 우씨의 자

10) 주매, 2013, 「조선후기 호적을 통해 본 계보와 사회적 네트워크: 17, 18세기 大邱月村 지역 丹陽 禹氏 가계 형제 간 사회,경제위상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8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90~92쪽.

11) 주매, 2013, 앞의 글에 제시된 가계도와 비교한 결과 해북촌의 단양우씨는 월촌지역의 단양 우씨와 혈연적 연관성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손이었다.

이상의 【표 1】, 【표 2】, 【표 3】을 종합해 보면, 해북촌의 대구 우씨는 1684년부터 여(을)어리를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이들은 10여호 내외의 戶數를 유지하면서 1705년까지 지속적으로 여(을)어리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1732년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대구 우씨는 해북촌의 호적대장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는 1706년~1732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대구 우씨가 단양 우씨로 개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732년에 작성된 해북촌의 호적대장에는 단양 우씨가 기재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여전히 여(을)어리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그런데 1747~1768년 사이에 해북촌의 里僻제가 상당히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단양 우씨가 거주했던 여(을)어리가 광리로 바뀌었다. 마을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단양 우씨는 그들이 정착했던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19세기 중반 무렵인 1858년에는 28호까지 수적인 확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수적인 측면에서는 19세기 중반 무렵 해북촌 광리에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II. 인적 구성의 확대와 他 姓貫의 배제과정

해북촌의 단양 우씨는 해북촌 여(을)어리 또는 광리에서 17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대략 200여년 후인 19세기 중반 무렵 수적인 측면에서 동성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광리를 중심으로 한 단양 우씨 동성마을의 형성시기와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양 우씨 구성원의 수적 확대 뿐 만 아니라 타 성관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동성마을의 형성여

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의 확대 뿐 만 아니라 마을내 타 성관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 가는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해북촌 광리에 거주한 주요 성관을 살펴본 것이 【표 4】이다.

【표 4】 해북촌 광리 주요 성관의 戶數 추이

성관별 戶數 연도	단양 우	경주 최	김해 김	경주 김	경주 이	안동 권	밀양 박	진주 강	전체 戶數
1768년	15	10	16	4	4	1	3	1	66
1774년	13	6	14	4	3	1	4		62
1789년	11	7	12	4	1	2	3		50
1792년	12	7	9	3	1	2	3		49
1795년	12	7	8	4	1	2	3		50
1801년	14	5	12	3		2	2		58
1804년	17	2	10	5		2	3		59
1825년	18	6	8	5		3	3	3	67
1837년	17	6	5	4		10		3	72
1846년	21	10	5		1	6		3	75
1858년	28	8	4	4	2	8	2	1	78
1861년	32	9	7	5		8	1		81
1867년	25	11	4	5		8	1		74
1870년	25	10	3	6	1	9	1		74

【표 4】는 단양 우씨가 동성마을을 형성한 광리에 거주했던 주요 성관의 戶數 추이를 집계한 것이다. 검토 시기는 광리가 호적대장에 기재되기 시작한 1768~1870년까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768년 이전 단양 우씨가 거주했던 여(을)어리가 광리로 바뀌었지만, 광리가 여(을)어리의 명칭만이 바뀐 마을인지 또는 여(을)어리 이외에 또다른 마을이 통합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후의 통계에서는 광리가 처음 호적대장에 기재된 1768년 이후의 기록을 분석하고

자 한다. 광리에는 【표 4】에서 살펴본 주요 성관 이외에도 다른 성관들도 거주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타 성관의 호수는 1~2호 정도로 매우 소수의 호만이 기재되었다. 또한 호적대장의 기록상으로는 기타 성관들은 광리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표 4】는 광리에서 비교적 많은 호수가 기재되었고, 지속적으로 거주했던 주요 성관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 4】는 단양 우씨가 광리에서 인적 구성원을 확대하여 타 성관들을 압도해 간 과정을 잘 보여준다. 1768년 광리의 단양 우씨호는 15호였다. 당시 광리의 총 호수가 66호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광리에서 단양 우씨의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해 김씨의 호수는 16호로 단양 우씨보다 많았으며, 경주 최씨 역시 10호가 기재되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때의 광리는 단양 우씨를 비롯하여 김해 김, 경주 최씨가 마을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18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단양 우씨가 근소한 차이로나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때는 19세기에 들어서였다. 1801년의 호적대장에 기재된 단양 우씨호는 14호였다. 그런데 이 때에도 김해 김씨호는 12호가 기재되어 광리에서 여전히 단양 우씨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경주 최씨호는 5호로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단양 우씨가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다른 성관을 압도한 시기는 19세기 중반 무렵으로 보인다. 1858년 광리의 총 호수는 78호이며, 단양 우씨호는 28호였다. 전체 호수의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또한 18세기 중반 이래 광리의 주요 성관이었던 김해 김씨호는 1858년 당시 4호만이 기재되었으며, 또 다른 주요 성관이었던 경주 최씨호는 8호가 기재되었다. 3개의 성관이 수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비중을 보였던 18세기 중반과 비교하면 단양 우씨 구성원의 증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1858년에는 이전 시기에는 별다른 비중을 갖지 못했던 안동 권씨호 8호가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안동 권씨 역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적 구성원이 확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단양 우씨는 18세기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인적 구성원을 확대하였고,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다른 성관을 압도하였다. 이에 비해 김해 김, 경주 최씨 등 광리의 또 다른 주요 성관들은 단양 우씨처럼 지속적으로 인적 구성원이 확대하지 못한 채 증감을 거듭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광리에서 인적구성원의 측면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라는 측면에서도 단양 우씨를 능가하는 성관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기타 성관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광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인적인 확대를 이루었던 단양 우씨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마을의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마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70년 이후에 작성된 호적대장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단양 우씨의 주도권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사에서 해북촌에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조사에는 구체적인 里名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해북촌 안에 광리 이외에 단양 우씨의 거주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을은 광리였던 것으로 보인다.¹²⁾

광리의 단양 우씨가 동성마을을 형성해 가는 과정은 다른 동성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즉, 異姓이 雜居하던 마을에서 특정 성관이 인적 구성원의 측면에서 여타 성관들을 압도함으로써 마을의 주도권을 잡고, 여타 성관들을 배제해 가는 과정은 다른 동성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

12) 善生永助, 1933, 『朝鮮の聚落』 後篇, 조선총독부, 524쪽.

조선후기 평민 同姓마을의 형성과 특징

았다. 그런데 광리의 단양 우씨는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양반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동성마을이 된 광리에서는 양반을 찾아 보기 어렵다. 즉, 단양 우씨에 의해 광리에 형성된 동성마을은 일반적인 양반마을이 아닌 평민 동성마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은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 광리의 계층분포

연도	계층	상층호	중층호	하층호	職役無記	缺落	합계 (전체 호수)
1768년		1	59		6		66
1774년		1	60		1		62
1789년		4	45		1		50
1792년		4	43		2		49
1795년		5	45				50
1801년		6	49			3	58
1804년		9	50				59
1825년		15	49		3		67
1837년		39	32		1		72
1846년		49	24		2		75
1858년		68	9		1		78
1861년		71	8		2		81
1867년		67	3		4		74
1870년		64	1		9		74

【표 5】는 1768~1870년까지의 광리의 계층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호적 대장에 기재된 主戶의 職役을 상, 중, 하층으로 구분한 것이다.¹³⁾ 이를

13) 계층 구분의 기준은 김경란, 2003, 『조선후기 ‘단성현호적대장’의 여성과악실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2쪽 【표 2】를 참조·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상층: 前現職 관직자, 幼學, 진사·생원·출신, 원종공신, 통덕랑, 동몽, 급제 및 氏호칭 여성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8세기 중·후반 광리에는 上層戶가 거의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768년 광리는 총 66호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상층호는 단 1호에 불과하다. 주호직역이 기록되지 않은 6호를 제외한 나머지 59호는 모두 中層戶로 분류된다. 유일한 상층호는 幼學 孫孝宗이 주호인 호로씨(6통 5호) 손효종은 일직 손씨이다. 1774년의 유일한 상층호도 역시 손효종이 주호인 호이다. 그러나 1789년부터 손효종을 비롯한 일직 손씨는 광리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1792년의 상층호는 인천 채, 월성 최, 벽진 이, 경주 최씨의 호가 각각 1호씩 총 4호가 있다. 그러나 이들도 이후 식년에 작성된 호적대장에 기재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광리에 거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극소수의 상층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들은 모두 중층호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8세기 중·후반 광리는 대부분 평민들이 거주한 전형적인 민촌이었다.

둘째, 광리에는 下層戶 즉, 奴婢戶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1768~1870년까지 현존하는 14개 식년의 호적대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실이다. 노비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 마을에 양반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양반마을에는 양반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노비호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역시 광리가 민촌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셋째, 거의 대다수가 중층이었던 광리의 계층 구성은 19세기 이후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전반에도 여전히 중층호가 대다수를 차지했

-
- 중층: 가선대부, 통정대부, 절충장군, 전력부위, 충순위·충익위·충의위·충찬위 등 諸衛, 업유, 업무, 교생, 원생, 납속, 군관, 선무군관, 수첩군관, 양군관, 한량, 별무사, 별장, 향리(호장·기관·공생 등), 중앙 군사문 및 지방 영진소속·읍소속 군역자,역리, 역보, 武學, 양인, 잡색장인, 사령, 일수, 향청소리·소동·서원 및 姓·召史호칭 여성
 - 하층: 공사천 노비, 고공, 사노겸역자

지만 점차 상층호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837년을 기점으로 상층호의 비중이 중층호를 다소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858년 이후에는 상층호가 중층호의 비중을 압도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층상승은 어떤 성관에 의해 주도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계층상승은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 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 해명을 위해 작성한 것이 【표 6】과 【그림 1】이다. 먼저 【표 6】을 보자.

【표 6】 광리 거주 주요성관의 계층분포

연도	성관	상층호	중층호	하층호	職役無記	성관별 합계	전체 호수
1768년	단양 우		12		3	15	66
	경주 최		10			10	
	김해 김		16			16	
1774년	단양 우		13			13	62
	경주 최		8		1	9	
	김해 김		14			14	
1789년	단양 우		11			11	50
	경주 최	1	6			7	
	김해 김		12			12	
1792년	단양 우		12			12	49
	경주 최	1	5		1	7	
	김해 김		9			9	
1795년	단양 우		12			12	50
	경주 최	1	6			7	
	김해 김		8			8	
1801년	단양 우	2	12			14	58
	경주 최	1	4			5	
	김해 김		12			12	
1804년	단양 우	4	13			17	59
	경주 최	1	1			2	
	김해 김	1	9			10	

1825년	단양 우	10	8			18	67
	경주 최	4	2			6	
	김해 김		8			8	
1837년	단양 우	11	6			17	72
	경주 최	5	1			6	
	김해 김	2	2		1	5	
1846년	단양 우	20			1	21	75
	경주 최	10				10	
	김해 김	3	2			5	
1858년	단양 우	28				28	78
	경주 최	7	1			8	
	김해 김	2	2			4	
1861년	단양 우	31			1	32	81
	경주 최	7	1		1	9	
	김해 김	4	3			7	
1867년	단양 우	23			2	25	74
	경주 최	8	1		2	11	
	김해 김	3	1			4	
1870년	단양 우	23			2	25	74
	경주 최	9			1	10	
	김해 김	1	1		1	3	

앞의 【표 4】에서 18세기 중반 이래 광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했던 대표적 성관은 단양 우, 경주 최, 김해 김씨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6】은 광리의 대표적 성관이었던 단양 우, 경주 최, 김해 김씨 등 3개 성관의 계층분포를 집계한 것이다. 【표 5】와 마찬가지로 3개 성관을 가진 주호의 직역을 상, 중, 하층으로 구분하여 계층분포를 검토하였다.

【표 6】을 보면, 1768, 1774년에는 3개 성관 모두 상층호가 전혀 없었다. 3개 성관 중에서 가장 먼저 상층직역자가 주호로 등재된 성관은 경주 최씨였다. 1789년에 경주 최씨호는 7호가 기재되었는데, 이 중 1호가 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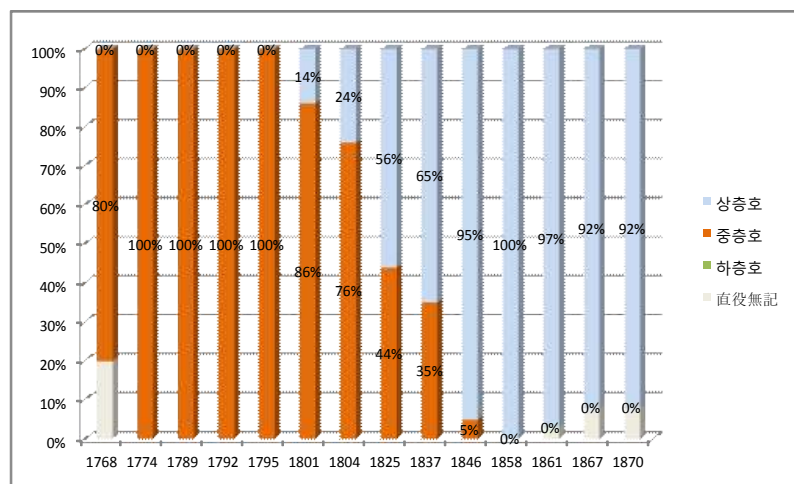
호였으며 나머지 6호는 여전히 중층호였다. 1792, 1795년에도 여전히 경주 최씨호 중에서 1호만이 상층호로 분류된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 단양 우씨의 경우에도 상층호가 기재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1801년 단양 우씨호는 총 14호로써 이 중에서 상층호는 2호였다. 단양우씨호의 주호가 직역상승을 하는 추세는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였고, 1846년에는 단양 우씨 21호 중 주호의 직역이 기재되지 않은 1호를 제외한 나머지 20호가 모두 상층호였다. 이에 비해 경주 최, 김해 김씨 주호의 직역상승은 그 증가세가 단양 우씨에 비해 작을 뿐 아니라 이들 2개 성관은 호수 또한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단양 우씨의 경우 직역상승의 추세가 다른 성관에 비해 컸음을 보여준다. 앞의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1846년 광리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중층호가 있었다. 1846년 광리의 총호수는 75호였으며, 이 중에서 24호가 중층호였다. 이러한 사실과 단양 우씨의 직역상승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단양 우씨의 상층직역으로의 상승이 경주 최, 김해 김씨 뿐 만 아니라 마을내의 다른 성관들보다 훨씬 앞섰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단양 우씨의 직역상승 추세는 【그림 1】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앞의 【표 6】에 제시된 단양 우씨호의 계층분포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화한 것이다. 상층호와 중층호의 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쏠 시기동안 하층호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며, 주호직역이 기록되지 않은 소수의 호들이 있다. 따라서 하층호와 주호직역이 기재되지 않은 호는 백분율(%)을 표기하지 않았다. 【그림 1】을 보면, 소수의 職役無記戶가 기재된 1768년을 제외한 나머지 18세기 후반 호적대장에는 단양 우씨호의 주호직역이 중층직역자인 경우가 100%였다. 이 때 단양 우씨호의 주호는 匠人 및 일반 軍役者가 대부분이었다. 단양 우씨로 개관하기 전인 1684년 대구 우씨호의 주호직역이 모두 匠人 또는 甕匠으로

기재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100여년이 지난 뒤에도 단양 우씨의 직역은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광리 단양 우씨의 계층변화의 추이



그런데 19세기에 들어 단양 우씨호의 직역분포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825년의 그래프를 보면 상증호 56%, 중증호 44%로 상증호가 중증호의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광리에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1858년의 그래프에는 단양우씨호의 주호직역이 상증직역으로 상승한 비율이 100%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광리안의 다른 성관 뿐 아니라 대구부의 다른 지역의 직역상승세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직역상승을 통해 사회적 위상을 높이려는 단양 우씨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동성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건이 되었을 것이다. 단양 우씨는 인적 구성원의 확대를 비롯하여 직역상승의 측면에서도 다른 성관을 압도하였고, 그 결과 단양 우씨가 타성관을 배제하고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중반 무렵 해북촌 광리에는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리는 본래 상층양반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고, 여러 성관을 가진 평민들이 거주한 전형적인 민촌이었다. 광리는 상대적으로 양반의 영향력이 적었던 마을이었던 것이다. 마을의 규모 역시 18세기 중반~19세기 후반까지 50~80호 정도를 유지한 작은 마을이었다. 이러한 광리의 특성은 평민층인 단양 우씨가 이곳에 동성마을을 형성하기에 용이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단양 우씨는 오랜 시간의 世居를 통해 인적 구성원을 확대하고, 양반층이 영향력이 적었던 마을에서 마을내의 다른 평민들보다 앞서 직역상승을 이룸으로써 마을의 주도권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의 형성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러한 특징은 평민 동성마을의 형성요건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Ⅲ. 同姓마을 구성원의 혈연적 연관성과 혼인관계

동성마을에 대한 개념규정과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기준은 인적 구성의 문제이다. 특정 姓貫이 마을 내에서 타 성관에 비해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마을 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동성마을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혈연적 연관성이 밀접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마을의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의 우위 뿐만 아니라 族의인 기반하에

서 다양한 문중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血緣의 集居는 동성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또한 양반 동성마을의 경우 구성원 사이에 혈연적 연관성이 밀집했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즉, 특정 성관내에서도 단일한 계보 또는 계파별로 집거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평민 동성마을은 구성원들이 단일 계파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혈연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양반 동성마을과 평민 동성마을의 가장 큰 차이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광리에 집거한 단양 우씨들의 혈연적 연관성은 어떠했을까?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해 광리 단양 우씨의 혈연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표 7】을 보자.

【표 7】 1858년 광리 단양 우씨호의 혈연관계

統戶	主戶 이름	계보(父~)	공통 祖先	공통 祖先과의 관계
1-1	상박	홍휴-재성-명식-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8代孫
1-3	노홍	만홍-명룡-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1-5	진형	기룡-봉세-덕인-칠성-득룡-충립	충립	6代孫
2-3	영문	명현-예서-덕승-칠성-득룡-충립	충립	6代孫
3-1	진문	명현-예서-덕승-칠성-득룡-충립	충립	6代孫
3-3	만엽	명룡-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6代孫
4-1	하석	진옥-명천-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4-3	계성	만국-명룡-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4-4	계홍	복주-명수-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5-1	효문	명관-예서-덕승-칠성-득룡-충립	충립	6代孫
5-3	인석	삼성-명재-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6-1	진민	기룡-봉세-덕인-칠성-득룡-충립	충립	6代孫
6-2	계순	경운-재인-명식-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6-5	창률	홍규-일성-명재-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7-2	만석	재홍-명식-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7-4	희선	성백-수원-태상-언봉-잔자미-충립	충립	6代孫

조선후기 평민 同姓마을의 형성과 특징

8-1	영진	재홍-명식-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8-4	영석	삼성-명재-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8-5	홍록	재선-명식-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9-1	규준	홍팔-두성-명재-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8代孫
9-2	상률	원규-일성-명재-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8代孫
9-4	홍억	두성-명재-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11-4	병선	순선-윤삼-태상-언봉-간자미-충립	충립	6代孫
12-4	회경	양철-만재-재홍-명식-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9代孫
13-4	재문	백선-명수-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14-2	정술	일순-복선-명수-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8代孫
14-5	대규	맹철-일순-복선-명수-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9代孫
14-8	기홍	복주-명수-예도-덕상-칠성-득룡-충립	충립	7代孫

【표 7】은 단양 우씨가 광리에서 동성마을을 형성한 시점으로 여겨지는 1858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1858년 광리의 단양 우씨호는 총 28호였다. 단양 우씨호의 주호 28명을 기준으로 1684~1846년까지 약 160년 사이의 호적대장에 기재된 祖先의 계보관계를 추적하여 【표 7】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1858년 광리에 거주하는 단양 우씨는 모두 단일한 계보를 가진 혈족관계였음을 확인하였다. 광리 단양 우씨의 혈연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1684년 해북촌 여을어리 4통 3호의 주호인 禹忠立의 자손들이었다. 우충립은 직역이 甕匠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1684년에는 단양 우씨로의 改貫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관이 대구 우씨였다.¹⁴⁾

1858년 광리에 거주했던 단양 우씨호의 주호는 우충립의 6~9대손이었으며, 6,7대손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모두 우충립의 두 아들인 우득룡과 우간자미의 자손들로써 특히 우득룡의 자손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8명의 주호 중에서 7통 4호의 주호 희선과 11통 4호의 주호 병선

14) 『慶尙道大丘府戶籍大帳』解北村 汝乙於里 四統 三戶, 1684年.

만이 우잔자미의 자손이었고, 나머지 26호의 주호는 모두 우충립의 아들인 우득룡의 자손들이었다.

또한 1858년 광리에 거주한 단양 우씨를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대부분 우예도의 3, 4대손이었다. 즉, 우예도는 1858년 광리에 거주하는 단양 우씨의 曾祖 또는 高祖인 경우가 많다. 이는 1858년 광리 단양우씨가 가까운 촌수이내의 혈연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예도는 광리 단양 우씨 공통의 祖先인 우충립의 4대손이다.

이와 같이 광리의 단양 우씨는 공통의 祖先에서 비롯된 단일한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평민 동성마을내의 구성원들은 혈연적 연관성이 없거나 또는 여러 계보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존의 이해와는 상충된다. 광리의 단양 우씨는 오랜 기간에 걸친 世居로 혈연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민 동성마을 구성원의 혈연적 연관성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단, 평민 동성마을은 형성과정에 따라 그 내부적 구성원리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¹⁵⁾

한편, 조선시대 양반들은 그들의 家格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인 지위가 동일하거나 혹은 상위의 가문과 통혼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경상도 단성현의 유력 성관이었던 안동 권씨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17세기 후반 동성마을을 형성한 이후 인근의 유력성관이나 가문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다. 단성현 안동 권씨의 배우자는 16개 성관에 집중되었고, 이들 16개 성관의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대별로 50% 수준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⁶⁾ 단성현의 상산 김씨의 통혼 양상도 안동 권

15) 이러한 문제는 평민 동성마을에 대한 사례연구가 좀 더 축적된 이후 그 일반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권내현, 2006,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111~114쪽.

씨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¹⁷⁾ 이와 같이 양반 동성마을의 특성 중의 하나가 유력성관이나 가문과 중첩적으로 통혼권을 형성했다는 점이였다. 그런데 평민층이었던 광리의 단양 우씨의 통혼 양상은 양반 동성마을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리의 단양 우씨의 혼인관계는 다음의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은 1768~1870년 광리 단양 우씨호의 주호부부를 대상으로 단양 우씨의 배우자 성관을 집계한 것이다. 1768~1870년 사이에 작성된 14개 식년의 단양우씨호를 합하면 총 260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여러 식년에 걸쳐 중복기재된 호와 주호의 배우자기록이 없는 호 등을 제외하고, 주호의 배우자 성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호는 총 114호이다.

이들 114호의 주호 배우자성관을 검토해 보면, 광리 단양 우씨는 46개 성관과 혼인관계를 맺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성총과 혼인한 사례도 2건이 발견된다. 【표 8】을 통해 볼 때, 광리 단양 우씨와 가장 많은 혼인관계를 맺은 성관은 김해 김씨였다. 김해 김씨와 혼인을 한 사례는 모두 24건에 달한다. 월성 최씨와의 혼인관계는 6건, 월성 이씨와의 혼인 관계가 5건이었으며 그 이외의 성관과의 혼인관계는 100여년 동안 1~3건에 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리 단양 우씨는 김해 김씨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양 우씨와 가장 많은 혼인관계를 맺은 김해 김씨는 대구부의 大姓 중 하나였다.¹⁸⁾ 그런데 김해 김씨는 수적으로는 대구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성관이었지만, 사회적 위상의 측면에서 볼 때 대구부의 유력성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이후 급격한 有姓化 현상이 진행

17) 이성임, 2008,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혼인관계-단성현 범물야면 商山金氏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257~258쪽.

18) 김경란, 2010, 「조선후기 도시 지역의 姓貫 변동 -大丘府 西上面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79쪽 【표 3】 참조.

되는 과정에서 대구부의 無姓層들이 획득한 대표적 성관이 김해 김씨이기도 하였다.

【표 8】 광리 단양 우씨의 배우자 성관

배우자성관	수치	배우자 성관	수치
감천 황	1	월성 이	5
경주 김	2	월성 최	6
경주 박	1	은진 송	2
경주 유	2	인동 장	3
경주 이	1	일주 유	2
경주 최	4	제주 고	1
김녕 김	3	진주 강	1
김해 김	24	창녕 조	2
나주 추	4	창원 황	2
남평 문	1	청송 남	1
달성 배	1	청주 고	1
달성 서	1	청주 양	2
대구 배	3	청주 한	1
동래 정	2	초계 변	2
밀양 손	3	초계 하	1
밀양 박	3	추계 추	2
벽진 이	1	파평 윤	3
안동 김	1	하빈 이	1
연안 임	1	하양 허	2
연일 정	2	함안 조	2
영양 남	1	해주 오	3
영천 이	1	회덕 송	1
완산 이	2	無姓層	2
월성 박	1	합계	114

광리 단양 우씨와 혼인한 김해 김씨의 가계기록을 추적해 보면, 대다수가 일반 균역자 등의 중층 직역자들이었다. 따라서 광리의 단양 우씨들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해 김씨와 중첩된 혼인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광리 단양 우씨의 혼인관계를 통해서만 여타 양반 동성마을처럼 혼인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광리 단양 우씨의 혼인관계에서 한 가지 남은 문제는 통혼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것이다. 양반 동성마을의 경우 특정 성관과의 중첩된 통혼은 인근에 유력 가문이 존재하거나 그들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경상도 단성현의 안동 권씨의 사례를 보면, 안동 권씨 여성 배우자의 26.7%가 같은 단성현 관내 출신이었으며, 단성 관내에서는 같은 면이나 인접한 면 출신의 배우자가 많았다. 특히 면내에서도 같은 촌락 출신의 인물과 혼인한 경우가 전체 13건 중 9건이나 되었다. 이는 인근에 유력가문이 존재하거나 그들의 동성마을이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¹⁹⁾ 이러한 양반 마을에 비해 광리 단양 우씨의 배우자의 출신촌락은 특정 마을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표 9】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표 9】 광리 단양 우씨 배우자의 출신촌락

출신촌락	해북촌								해북촌내 미확인
	광리	능성리	미대리	백안리	인산리	중산리	진정리	평리	
수치	4	5	1	5	2	4	3	4	86
	28								
비율(%)	25%								75%
합계	114								

19) 권내현, 2006, 앞의 글, 118쪽.

【표 9】는 앞의 【표 8】과 마찬가지로 1768~1870년 사이의 호적대장에 기록된 광리 단양 우씨호의 주호부부를 대상으로 단양 우씨 배우자의 출신촌락을 집계한 것이다. 통혼의 지역 분포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즉 보에는 배우자의 출신 지역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혼권의 지역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호적대장이 유일하다. 배우자의 四祖기록을 토대로 호적대장에 기재된 출신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통혼권의 지역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해북촌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의 출신 촌락을 찾기 어렵고, 호적대장에 누락된 사람이 다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호적대장을 통해 통혼권의 지역적 범위를 복원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통혼권의 지역적 분포의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에서는 단양 우씨 배우자의 출신 촌락이 해북촌 내부의 마을에서 확인되는 사례와 해북촌의 호적대장에서 확인되지 않아 해북촌 외부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큰 사례로 구분하였다. 【표 9】를 통해 보면, 해북촌 출신 배우자와 혼인을 한 비율은 25%, 해북촌 외부출신 배우자와 혼인을 한 비율은 75%로 나타난다. 그런데 광리 단양 우씨의 배우자 출신촌락은 특정한 마을에 집중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100여년 동안 해북촌 내부의 마을 중 단양 우씨가 가장 많은 혼인을 한 곳은 능성리와 백안리로 각각 5건에 불과하다. 이 중 능성리 출신의 배우자 성관을 보면, 밀양 박씨 1건, 경주 김씨 1건(이상 1768년), 김해 김씨 1건(이상 1789년), 김녕 김씨 1건, 달성 서씨 1건(이상 1861년)이다. 이 5건의 혼인관계는 배우자가 모두 능성리 출신이었지만 특정성관에 집중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양 우씨 배우자는 전혀 특정 촌락내의 특정 성관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양반 동성마을의 통혼이 동성마을 등의 특정 촌락에 거주하는 몇몇 성관에 집중되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광리 단양 우씨는 공통의 祖先에서 비롯된 단일한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광리의 단양 우씨는 오랜 기간에 걸친 世居로 혈연적 연관성을 유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성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양반 동성마을의 구성원들이 인근의 유력성관이나 대표적 동성마을의 구성원과 혼인을 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것과 달리 광리 단양 우씨들은 혼인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을 도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리의 단양 우씨가 평민층이었기 때문에 쉽게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광리 단양 우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19세기 이후 동성마을의 형성주체는 양반 뿐 아니라 평민층으로까지 분화되었다. 평민 동성마을은 광리 단양 우씨의 경우처럼 구성원들 사이에 밀접한 혈연적 연관성을 가진 마을도 있었다. 이러한 평민 동성마을의 형성은 조선후기 친족질서 전반에 나타났던 일반민의 상층지향성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평민 동성마을은 동일 성관의 血緣的 集居라는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양반 동성마을과 유사하였지만, 그 내부적인 구성은 다른 측면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성마을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族的인 기반을 강화하는 여러 門中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민 동성마을이 족적결합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호적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광리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이 1930년대까지 유지, 확대되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평민 동성마을에서도 이러한 족적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族契의 新設이나 族譜의 創刊 등이 오히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활발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대구부의 동성마을은 주로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에 형성된 마을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민 동성마을로 규정할 수 있는 마을들이 포함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해북촌 광리의 단양 우씨 동성마을이다. 해북촌 광리에 형성된 단양 우씨 동성마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북촌의 호적대장에 단양 우씨가 처음 기재되었던 것은 1732년 여(을)어리였다. 그런데 단양 우씨는 이 때 새롭게 해북촌에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1732년 해북촌 여(을)어리에 거주했던 단양 우씨호의 구성원은 이전 식년에서 모두 대구 우씨를 칭하였는데, 18세기 전반 무렵 단양 우씨로 개관하였던 것이다. 이후 1747~1768년 사이에 해북촌의 리편제가 상당히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단양 우씨가 거주했던 여(을)어리가 광리로 바뀌었다. 마을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단양 우씨는 그들이 정착했던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19세기 중반 무렵인 1858년에는 28호까지 그 수적 확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수적인 측면에서는 19세기 중반 무렵 광리에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리의 단양 우씨가 동성마을을 형성해 가는 과정은 다른 동성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즉, 異姓이 雜居하던 마을에서 특정 성관이 인적 구성원의 측면에서 여타 성관들을 압도함으로써 마을의 주도권을 잡고, 여타 성관들을 배제해 가는 과정은 다른 동성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광리의 단양 우씨는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양반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동성마을이 된 광리에서는 양반을 찾아 보기 어렵다. 광리는 본래 상층양반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고, 여러 성관을 가진 평민들이 거주한 전형적인 민촌이었던 것이다. 마을의 규모 역시 18세기 중반~19세기 후반까지 50~80호 정도를 유지한 작은 마을이었다.

중층지역자가 대다수였던 단양 우씨는 19세기 이후 마을 내의 다른 성관들에 앞서 상층지역으로 상승하였다. 지역상승을 통해 사회적 위상을 높이려는 단양 우씨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동성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건이 되었을 것이다. 단양 우씨는 오랜 시간의 世居를 통해 인적 구성원을 확대하였고, 양반층이 영향력이 적었던 마을에서 여타 성관보다 앞서 지역상승을 이룸으로써 마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의 형성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러한 특징은 평민 동성마을의 형성요건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광리의 단양 우씨는 공통의 祖先에서 비롯된 단일한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평민 동성마을내의 구성원들은 혈연적 연관성이 없거나 또는 여러 계보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존의 이해와는 상충된다. 광리의 단양 우씨는 오랜 기간에 걸친 世居로 혈연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민 동성마을 구성원의 혈연적 연관성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형성과정에 따라 그 내부적 구성원리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양반 동성마을은 유력성관이나 가문과 중첩적으로 통혼권을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평민층이었던 광리 단양 우씨의 통혼 양상은 일반적인 양반 동성마을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양반 동성마을처럼 특정 성관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혼인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단양 우씨의 배우자의 출신촌락 역시 특정 마을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평민 동성마을의

통혼양상은 양반마을의 그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광리 단양 우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이후 동성마을의 형성주체는 양반 뿐 아니라 평민층으로까지 분화되었다. 평민 동성마을은 광리 단양 우씨의 경우처럼 구성원들 사이에 밀접한 혈연적 연관성을 가진 마을도 있었다. 이러한 평민 동성마을의 형성은 조선후기 친족질서 전반에 나타났던 일반민의 상층지향성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평민 동성마을은 동일 성관의 혈연적 집거라는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양반 동성마을과 유사하였지만, 그 내부적인 구성은 다른 측면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성마을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족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여러 문중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민 동성마을이 족적결합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호적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광리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이 1930년대까지 유지, 확대되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평민 동성마을에서도 이러한 족적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族契의 결성이나 族譜의 발간 등 평민 동성마을내의 족적기반 강화를 위한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의 문제는 평민 동성마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이는 향후의 연구로 돌린다.

참고문헌

1. 사료

『慶尙道大丘府戶籍大帳』 전산데이터 베이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 연구원.

善生永助, 1933, 『朝鮮の聚落』, 조선총독부.

2. 논저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73, 『大邱市史』

오영교, 2004, 『강원의 동족마을』, 집문당.

권내현, 2004, 「조선후기 호적과 족보를 통한 동성촌락의 복원」,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권내현, 2006,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132, 한국사연구회.

권내현,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경란, 2003, 『조선후기 ‘단성현호적대장’의 여성파악실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란, 2016, 「조선후기 대구부 同姓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3, 한국사학회.

이성임, 2008,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혼인관계-단성현 범물야면 商山金氏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이수건, 1990, 「良洞의 역사적 고찰」, 『良佐洞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이수건, 1994, 「朝鮮後期 姓貫意識과 編譜體制의 변화」, 『九谷黃種東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사학연구 제128호(2017. 12)

이해준, 1996, 「동족마을의 형성과 조직」, 『조선시기 촌락사회』, 민족문화사.

정진영, 1998, 「조선후기 동성촌락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조선시대향촌사회』, 한길사.

주매, 2013, 「조선후기 호적을 통해 본 계보와 사회적 네트워크 : 17, 18세기 大邱月村 지역 丹陽 禹氏 가계 형제 간 사회, 경제위상의 분화」, 『대동문화연구』 8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Abstract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mmoners'
Clan Villages in the Late Joseon Period
- Case Study of the Danyang Woo Clan of Haebukchon Village
in Daegu Prefecture

Kim, Kyung Ran

The clan villages in Daegu prefecture began to form purposefully in the late 18th to mid-19th century, and more than a few villages also emerged in the late 19th to 20th century. Among those villages were those that can be defined as commoners' clan village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Danyang Woo clan's village in Gwang-ri, Haebukchon village. The Danyang Woo clan was not of the typical nobility (Yangban in Kore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Moreover,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nobility in Gwang-ri, which was village of the Danyang Woo clan. In fact, Gwang-ri was originally a typical commoners' village, which was inhabited by ordinary people with different family names and clan seats, rather than those of the upper class. Since the 19th century, the Danyang Woo clan, who occupied the majority of middle-class occupations, rose to the position of the upper class before any of the other family names in the village. The intention of the Danyang Woo clan in raising the social status through the rise in position was consequently a factor of the formation of a clan village.

The Danyang Woo clan of Gwang-ri shared one genealogy derived from a common ancestor. This conflicts with the existing understanding that the

members of a commoners' clan village had no blood relation to each other or that they originated from various genealogies. It seems that the Danyang Woo clan of Gwang-ri lived for generation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maintained an exclusive blood relation.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of the Danyang Woo clan of Gwang-ri, the entity of the formation of clan villages evolved into positions of the nobility and even the commoner since the 19th century. It seems that the formation of the commoners' clan village was mainly attributed to ordinary people's orientation toward the upper class which appeared in the overall kindred order of the late Joseon period.

Keywords : clan village, position, living together, family name and
clan seat, commoner